
요약

작년 6·2 지방선거와 최근에 실시된 4·2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지역구도의 약화와 더불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유권자 재편현상(partisan dealignment, Crewe 1977, Dalton 1984)에 따른 정치지형의 근본적인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견고했던 패권적 보수독점구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현 정권 집권 3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잦은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누적되면서 현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세력의 출현을 갈망하는 대중적인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조짐 속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현 시점의 정국상황과 민주당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민주당의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안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당면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인 협소한 지지기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새로운 대안세력의 출현을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민주당이 해야 할 두 가지 실천적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민주당은 노선의 선명성과 정책의 차별성 부각, 서민·중산층의 대표성 강화와 진보·개혁진영의 연대 또는 통합을 통해 '지역주의 선거연합'을 초월한 다양한 세대·계층·이념을 포괄한 '다수유권자연합'

을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한국사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및 비전제시 능력의 우월성을 통해 국민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해야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이 시대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현상인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다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당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성공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2012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

민주당의 당면과제와 전략적 구상

장환석_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전략연구실장



Contents

I. 현 정국 진단	1
II. 민주당의 현주소 진단	8
III.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	12
IV. 향후 전략적 실천과제 및 대책	14

• 표 목차 •

[표 1]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층의 현 지지정당별 분포	2
[표 2] 차기정부 이념성향 선호도	4
[표 3] 부동산 포함 각 정당 지지기반 규모	9
[표 4] 무당파층 2차 판별분석에 의한 정당지지율	10
[표 5] 제2순위 선호정당 고려한 각 정당의 잠재지지층 규모	10
[표 6] 각 정당 지지층 유형별 분포 및 구조적 특성	11
[표 7] 각 세대의 분야별 정체성 분류	15
[표 8] 민주당 지지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23
[표 9] 현재 민주당 지지층 중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한 계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23

• 그림 목차 •

[그림 1] 정권교체 vs. 정권유지에 대한 입장	3
[그림 2]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3
[그림 3] 각 정당 지지도 추이	4
[그림 4]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현상(부동층 포함 각 정당 지지층 대상)	6
[그림 5]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현상(부동층)	7
[그림 6] 전 정부 대비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능력 평가	8
[그림 7] 선호하는 대한민국 미래사회 유형	15
[그림 8] 현 정권 실정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동반책임론 공감 여부	17
[그림 9] 민주당 및 한나라당 지지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22
[그림 10] 부동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24
[그림 11] 민주당 및 한나라당 지지층의 현 정당 지지이유	25
[그림 12] 부동층의 현 정당 지지이유	26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I 현 정국 진단

1) 현 정치지형의 특징

■ 유권자 지지변동성(Volatility) 증가에 따른 정치지형의 근본적인 변화 조짐

- 정치구도 및 정치세력의 재편 국면
- 6·2 지방선거 이후 4·27 재보선을 정점으로 보수 독점적 정치구도의 균열 및 유권자 재편현상에 따른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 가시화 전망
- 현 정권 집권 3년 국정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누적과 실망감 심화 상황
- 각 정당 내적으로는 대권경쟁을 둘러싼 잠재적 대권주자 및 세력 간 힘겨루기 양상 속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전망
- 한나라당은 집권 후반기 대권후보 경쟁과정에서 친李 vs. 친朴세력 간 치열한 헤게모니 투쟁 전개 양상 속 대권주자군의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 및 당청갈등 심화에 따른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 직면 전망
- 민주당은 진보·개혁진영의 연대·통합 본격 추진 전망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보세력 통합을 계기로 진보적 정체성 유지를 통한 진보정당의 독자적 생존과 야권연대 또는 통합을 통한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둘러싼 당내 진통 예상

■ 현 정권을 대체할 대안세력 출현을 갈망하는 대중적 정서 확산

-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 무능한 국정운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서민

고충 가중으로 보수정권에 대한 회의적 반응 및 실망감 확산

- 대안부재 현상 속 차선택 성격의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기대감 증가

■ 現 정치지형 변화의 잠재 동력

- ①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층의 이반현상 본격화

[표 1]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층의 현 지지정당별 분포

17대 대선 지지 후보			정권교체 기대 여부(%)			
			한나라당 계속 집권	야당으로 정권 교체	잘 모름/무응답	전체
이명박 후보	현재 지지 혹은 선호정당	한나라당	46.7	2.5	10.8	60.1
		민주당	0.0	6.0	1.3	7.4
		자유선진당	0.3	0.8	0.4	1.5
		민주노동당	0.1	1.3	1.3	2.8
		창조한국당	0.1	0.0	0.0	0.1
		진보신당	0.0	0.3	0.4	0.7
		기타 정당	0.1	0.1	0.0	0.3
		선호정당 없음	3.5	5.9	13.4	22.8
		잘 모름/무응답	1.6	0.8	2.0	4.4
	전체		52.5	17.8	2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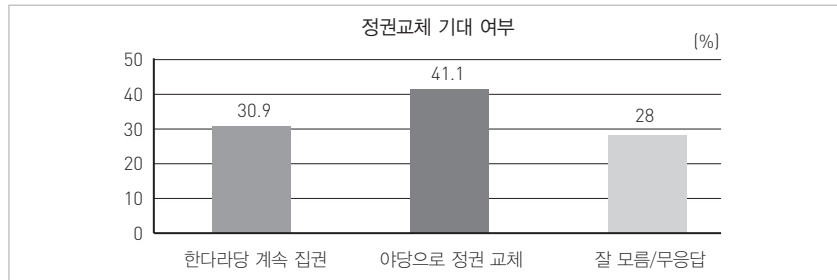
자료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 및 이탈층의 구조적 특성

- ▶ 이명박 대통령 계속 지지층은 △50~60대 고연령층, △국졸이하 저학력층, △최저·중하소득, 고소득 계층이 혼재되어 있으며, △수도권과 영남·충청출신 유권자, △영남권과 수도권 거주자, △보수와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층에 다수 분포
- ▶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한 계층은 △30~40대 연령층, △대졸이상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주부, 지역업자, △최저·저소득 계층 등 서민, △수도권과 영남출신 유권자, △영남·충청과 수도권 거주자, △중도와 중도 진보 성향 유권자로 구성

② 높은 정권교체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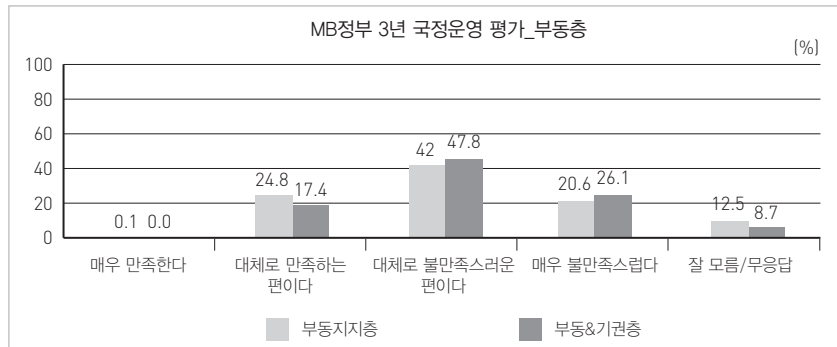
[그림 1] 정권교체 vs. 정권유지에 대한 입장



자료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③ 현 정권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그림 2]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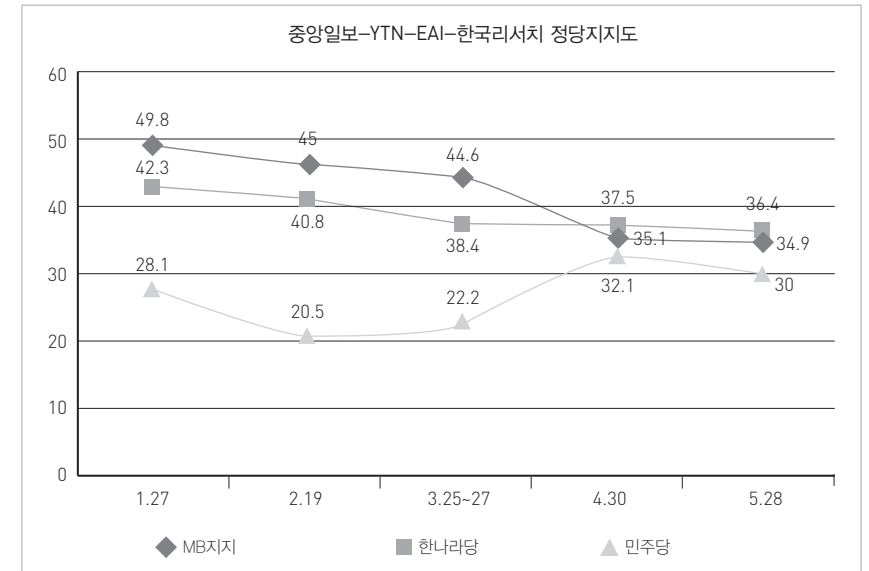


자료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1) 부동지지층은 지지정당을 수시로 변경하는 유권자 중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있는 층, 순수부동층&일시적 기권층은 지지정당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권하기도 하는 층, 부동층과 기권층이 세분화되어 부동지지층, 순수부동층&일시적 기권층, 순수기권층 등으로 분류 함

④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 및 민주당 지지율 상승 추세

[그림 3] 각 정당 지지도 추이



자료출처: 한국리서치 2011. 1. - 2011. 5. 조사

⑤ 진보개혁성향 차기정부 선호도 상승

[표 2] 차기 정부 이념성향 선호도

조사기간	정부성향	보수성향 정부	중도성향 정부	진보성향 정부
2007년 10월		47.4%	-	46.4%
2010년 7월		33.2%	-	56.2%
2011년 4월		29.7%	24.4%	45.9%

자료출처: KSOI 2007 - 2010. 9. 조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1. 5. 조사

2)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기 사회·경제적 환경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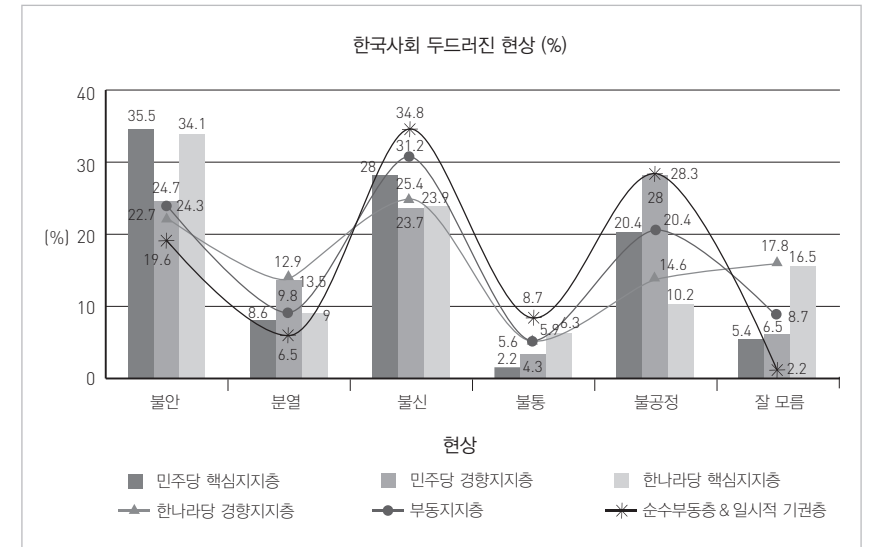
■ 경기회복 착시현상 이면에 드리워진 사회양극화 및 서민층 고통 심화

- ‘거시경제 지표 호전에 따른 경기회복세’ 등 정부의 대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물가폭등, 고용불안, 경기침체 장기화, 심화된 소득양극화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고통 심화
- 정치·사회적 불안 증가,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기양극화, 가계 부문의 과도한 부채와 서민층 소득감소 및 자산양극화 현상 심화, 특히 소득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이하 근로계층의 빈곤계층 전락 위기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생활 불안정성 증가

■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서민층의 불안심리 확산 및 불공정한 사회현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심화

-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삶의 불안감 증가 : 과거와 다르게 특정 세대·계층을 초월해 보편적 현상으로 전개되는 양상
-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해 미래의 불확실성이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확실함을 갈구하는 불안한 서민과 다수의 중산층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의 확충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림 4]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현상(부동층 포함 각 정당 지지층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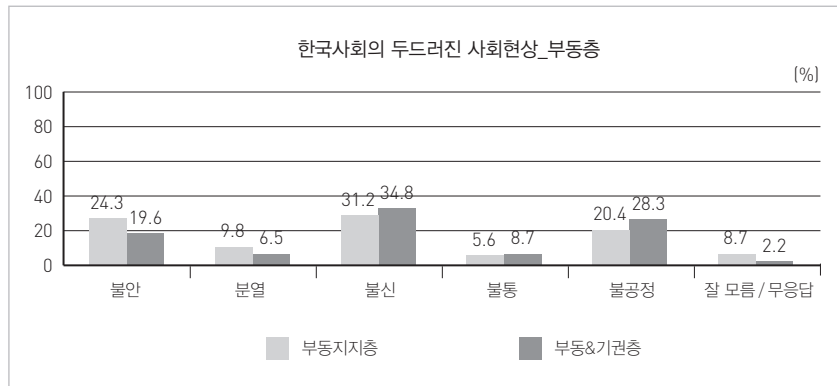


자료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민주당 핵심지지층은 한국사회를 불안 > 불신 > 불공정한 사회 순으로, 민주당 경향지지층은 불공정 > 불안 > 불신하는 사회 순으로, 한나라당 핵심지지층은 불안 > 불신 > 불공정한 사회 순으로, 한나라당 경향지지층은 불신 > 불안 > 불공정한 사회 순으로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현상을 지목한 반면
- 부동층은 현재의 한국사회를 불신 > 불공정 > 불안한 사회 순으로 바라보고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명박 정권의 일상화된 도덕불감증과 불공정한 사회현실에 대한 서민층의 강한 거부감과 상대적 박탈감 심화 상황

- 사회지도층의 불법·탈법·편법 등 현 정부 출범 후 일상화된 도덕불감증과 일부 기득권층의 특권적 행태와 사회적 일탈에 대한 의도적 묵인 등 이중적 잣대에 대한 거부감 증폭 및 신뢰도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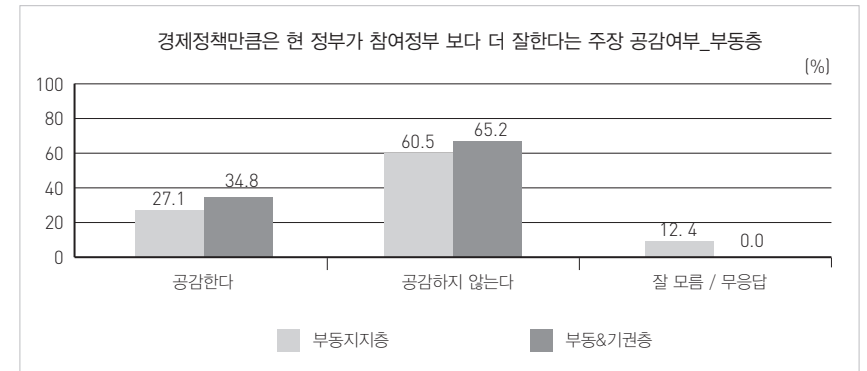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현상(부동층)



자료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현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회의감 증폭과 親서민 정책의 진정성과 체감효과 미흡으로 인한 불만 고조 상황
- 이명박 정부의 親서민 정책기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정책수혜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림 6] 전 정부 대비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능력 평가



자료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Ⅱ 민주당의 현주소 진단

■ 민주당 지지기반의 규모 및 특성

- 구조적 한계인 협소한 지지기반과 지지층의 지지변동성 심화
- 경쟁정당인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일체감이 강한 고정지지층은 협소한 반면, 부동층을 포함한 정당일체감이 약한 주변지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지층의 지지변동성이 심한 것이 특징
- 따라서 유권자 전체의 약 50%가 넘는 부동성향 유권자들의 견인여부가 민주당의 지지기반 외연확대의 관건
- ① 유권자 지형 분포 및 규모 : 각 정당 지지층 및 부동층 분류 현황
- 전체 유권자를 17대 대선 당시 지지정당, 6·2 지방선거 당시 지지정당, 현

재 지지하는 정당, 지난 5년간 자신의 투표행태 등 4가지 필터 질문(Filter Question)에 의해 △핵심지지층 △경향지지층 △부동지지층 △순수부동층&일시적 기권층 △순수기권층으로 분류함

[표 3] 부동층 포함 각 정당 지지기반 규모²⁾

	전 체 (%)	핵심지지층	경향지지층	부동지지층	순수부동층&일시적기권층	기권층
민주당	12.0	6.0	6.0			
한나라당	28.5	16.5	12.0			
민노 / 진보 / 창조	1.1	0.3	0.8			
자유선진 / 희망연대	1.1	0.1	0.2			
부동층	58.2			54.2	3.0	
기권층						1.0
총 계	100	22.9	19.0	54.2	3.0	1.0

자료출처 :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각 정당의 고정지지층의 규모는 한나라당에 비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2) 핵심지지층은 유동가능성이 없는 고정지지층, 경향지지층은 약간의 지지변동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층, 부동지지층은 지지정당을 수시로 변경하는 유권자 중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있는 층, 순수부동층&일시적 기권층은 지지정당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권하기도 하는 계층, 부동층과 기권층이 세분화되어 부동지지층, 순수부동층&일시적 기권층, 순수기권층으로 분류

② 정당지지율 및 무당층 대상 2차 판별분석에 의한 각 정당 지지기반 규모

[표 4] 무당파층 2차 판별분석에 의한 정당지지율

구분	지지정당(%)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	민노	희망연대	진보신당	창조한국	기타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1차 지지정당	35.3	23.9	1.8	3.7	0.6	1.2	0.3	0.8	28.2	4.0
무당층 판별	36.5	25.7	2.1	4.4	0.6	1.6	0.3	1.2	27.5	0

자료출처 :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③ 제2순위 선호정당 고려한 민주당의 잠재적 지지층 규모

[표 5] 제 2순위 선호정당 고려한 각 정당의 잠재지지층 규모

구분		지지정당								
		민주	한나라	자유선진	민노	미래연대	진보신당	창조한국	기타정당	계
2 순 위 선 호 정 당	민주당	-	8.0	1.1	2.3	0.3	0.5	0.1	0.3	12.5
	한나라당	4.4	-	0.6	0.8	0	0	0.2	0	6.0
	자유선진	1.5	6.9	-	0	0	0.1	0	0	8.5
	민노당	6.5	3.0	0.2	-	0	0.6	0	0.1	10.4
	미래연대	0.6	0.3	0.1	0	-	0	0	0	1.0
	진보신당	3.6	0.7	0	0.5	0.2	-	0	0.1	5.1
	창조한국	0.2	1	0	0	0	0	-	0	1.2
잠재 지지층 규모		민주당 (25.7% + 12.5% = 38.2%) vs. 한나라당 (36.5% + 6.0% = 42.5%)								

자료출처 :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무당파층을 대상으로 한 2차 판별분석 후, 추가로 2순위 선호정당의 유무를 재판별한 결과 민주당은 2차 선호정당 점유율 12.5%의 유권자를 親민주당의 잠재적 지지계층으로 추가적으로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소수 진보정당인 민노당(10.4%)과 자유선진당(8.5%)이 2순위 선호에서 상대적으로 타 군소정당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진보정당의 경우 실제 투표상황에서 사표심리가 작용해 판별분석에 따른 고정지지층 규모는 협소하나, 2순위 선호에서는 현재 지지율의 약 2배에 가까운 높은 잠재적 지지기반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표 6] 각 정당 지지층 유형별 분포 및 구조적 특성

		민주당 핵심 지지층	민주당 경향 지지층	한나라당 핵심 지지층	한나라당 경향 지지층	부동지지층/ 부동기권층
유형별 강세계층 (상대적 강세)	지역	호남 수도권	호남 수도권	영남 수도권 강원	영남 충청 수도권	충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연령	40대 50대	40대 30대	60세 이상 50대	60대 40대 50대	20대 30대
	직업	자영업 주부	자영업 화이트칼라	주부 무직	주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학생
	학력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고졸	중졸 국졸 고졸	대졸이상 고졸	대재 대졸이상
	소득	저소득 중상소득	중상소득 고소득	중하소득 저소득 고소득	저소득 고소득	중하 중상소득
	원적	호남 충청	호남	영남 수도권	영남 충청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자료출처: 민주당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최근까지 대안부재 현상 속 차선책 성격의 민주당 지지경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면서 현재는 기대감 표출 수준으로 진화
-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한 누적된 불만과 불신 심화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
-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 및 정권교체 기대감으로 인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 상승 추세

III 2012년 정권교체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

■ 전략적 목표

고정지지층 결속 + 현 정권 실망·이탈층 견인 + 부동층 다수 확보
 ➔ '다수유권자연합' 구축

- 근본적인 한계인 협소한 지지기반 : 다양한 세대·계층·가치가 결합된 '다수유권자연합' 구축 통해 극복
- 지지기반의 외연확대를 위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결합된 다수 유권자연합의 구축이 민주당 정권교체 실현의 선결과제
- 대안부재 속 차선책이 아닌 자발적 지지에 의한 선택대안으로 도약
- 유능한 정당·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국민적 신뢰 획득

■ 전략방향

회고적 투표경향 확산(현 정권 실정심판 구도 고착) + 대안(유능한)정당 각인
+ 야권연대 통한 한나라당과 1:1 구도 형성 + 미래지향적 대선후보 선출

-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Fiorina 1981) 경향 확산 위한 현 정부의 실정 부각
-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단히 중요
- 현 정부의 무능 또는 실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 더 강한 투표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민심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
- 유능한 대안정당 각인
- 대안부재 속 차선택이 아닌 자발적 지지에 의한 선택대안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대정신에 조응한 민주당만의 고유한 정책영역 구축 및 대표적 브랜드 정책 각인 통해 유능한 정당·대안정당 프로파일 획득에 주력
- 선명한 정체성과 노선 정립
- 계층 대표성 강화 및 이념·가치 지향성을 고려한 전략적 포지셔닝 필요
- 야권연대·통합 실현
- 야권연대·통합 완성으로 진보 vs. 보수의 단순한 선택구도 제시 중요
- 핵심 타깃계층 설정 및 설득 캠페인 전개
- 유연한 정책노선과 생활밀착형 민생이슈를 통해 新중산층, 중도성향의 부동층 등 주요 공략계층 건인

■ 전략로드맵

- 제1단계(~ 2011년 12월) : 유능한 정당·수권정당화 위한 성과축적 시기
- 이명박 정권의 실정 집중 부각과 진보·개혁성향의 제 정당 간의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 또는 대통합 가시화, 시대정신을 반영한 민주당만의 고유한 정책영역 구축 및 유능한 정당·대안정당 프로파일 획득
- 핵심과제 : ① 이명박 대통령·여당 vs. 민주당의 선명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대립프레임 구축을 통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 부각 및 회고적 투표경향 확산 ② 한국사회 당면과제 해결능력 우위 확보 및 미래비전 제시 통해 유능한 정당·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도약 ③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보·개혁세력의 실질적인 연대·대통합 구체화
- 제2단계(2012년 1월 ~ 2012년 12월 대선) : 총선승리, 시대정신 선점 및 야권연대 또는 통합 실현 통해 정권교체 분위기 조성 및 확산
- 핵심과제 : ① 2012년 총선 압도적 다수의석 확보 ② 시대정신 선점 및 정권교체 분위기 조성 및 확산 ③ 다수 유권자연합 구축 위한 다양한 세력·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통한 심리적 연대 형성 ④ 진보·개혁세력의 연대·통합 완성으로 진보 vs. 보수의 단순한 선택구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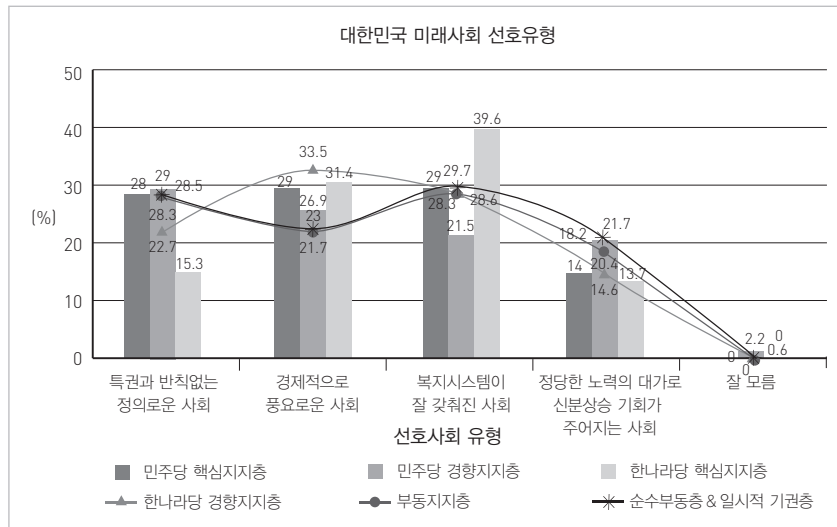
IV 향후 전략적 실천과제 및 대책

1) 유능한 정당·수권정당으로 도약

- 2012 총선과 대선구도를 좌우할 시대정신 발굴 및 선점

- 시대정신 반영한 민주당의 정책 프로그램과 국가발전전략 및 비전 제시
-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민주당만의 고유한 정책영역의 구축 및 정책능력 우위 확보 시급
- 민주당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 원칙,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함

[그림 7] 선호하는 대한민국 미래사회 유형



자료출처: 민주당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민주당 지지층은 정의 > 경제 > 복지, 한나라당 지지층은 복지 > 경제 > 정의, 부동산층은 복지 > 정의 > 경제 순으로 미래 한국사회의 유형 선호

■ 아젠다 선점과 선거쟁점화 위한 의제관리시스템 구축

- 정국주도력 확보와 대선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결조건은 아젠다 선도 및 차별화
- 시대정신 반영과 우선공약 대상 견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제시를 위한 전략적 판단 및 성과관리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를 고려한 의제관리시스템 강화
- 총선이나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분야의 의제나 이슈를 쟁점이슈화 하기 위한 대언론 전략 필요. 언론의 의제설정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제관리 필요

• 언론보도 집중화 통한 이슈점화효과의 극대화 위해 3가지 전제조건 충족 필요:

- ① (정부·여당에 가장 취약한 이슈이자, 민주당에 가장 효과적인)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
- ② 유권자 자신 스스로 중요한 이슈로 인식
- ③ 이슈와 연관된 문제점을 둘러싼 각 정당의 해결능력에 대한 평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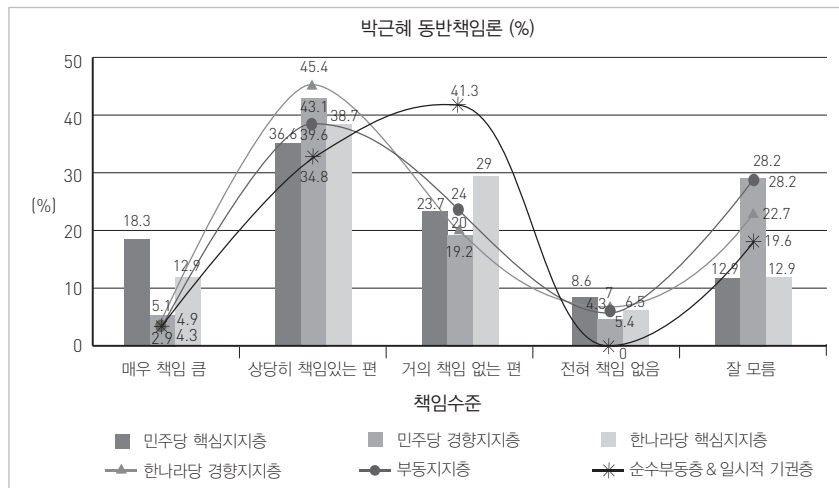
- 당의 정책단위 역할과 기능, 평시와 다른 정책기획 + 홍보기능 강화
- 비중이 큰 총선·대선 전 국민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타 정당과 차별성, 이해관계 계층의 실질적 체감효과, 창조적 발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 제시 필요
- 생산된 정책의 입법화·이해관계 계층 및 집단의 정책수요도, 만족도 및 체감효과 등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지기반 외연 확대효과 극대화 필요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회고적 투표 경향 확산 위해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프레임 구축 및 강력한 비판

-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 누적 상황에 대한 전략적 관리 필요

- 현 정부·여당의 실정과 보수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개념의 상위 대립프레임 설정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
- 회고적 투표경향 확산 →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현 정부의 평가가 유권자의 투표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도록 유도
-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에 대한 고조되는 불만과 누적된 실망감의 표출이 총선과 대선에서 표심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회고적 투표 경향 확산
- 현 정권의 최대 취약점 부각 필요 : ‘부패’, ‘무능’, ‘민생파탄’
- 국민적 신뢰의 주요 구성요소는 정부의 도덕적 권위와 국정운영능력
- 현 정부의 최대 취약점인 도덕불감증, 경제·통일외교 등 무능한 국정운영, 비민주적 통치행태 등에 대해 강력한 비판 필요
- 현 정권 실정에 박근혜 전 대표 동반책임론이 있음을 부각

[그림 8] 현 정권 실정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동반책임론 공감 여부



자료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생활정치 실천과 계층대표성 강화 통해 전통적인 서민·중산층 대변 정당인 진정성 부각

- 대중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생활정치 표방
- 구조조정·실업·미취업·비정규직 등 일자리 불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물가안정·경기회복 등 경제 활성화, 빈부격차 해소·빈곤층 대책 등 사회양극화 해소, 사교육비 경감·대학등록금 인하 등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제 중심의 대안제시가 최우선 과제
- 한나라당 대비 경제부문과 교육·복지 등 사회정책 분야의 한국사회 당면 과제 해결능력 우위 확보 반드시 필요

■ 국민들의 인식 속에 유능한 정당·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

- 대통령의 독선과 거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강한 야당, 유능한 대안정당·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정권교체 가능
- 무너져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말뿐인 정치적 구호 대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정책대안 제시, 진정성이 담긴 계층대변자(서민·중산층 대변자) 역할 강조 필요
- 실질적 체감효과 및 가시적인 성과 도출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
- 정부·여당과의 차별성과 실질적 체감효과를 강조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 참신하고 유능한 외부 인사영입 통해 변화하는 새로운 민주당의 이미지 개선효과 극대화

2) 다양한 세대·계층·가치를 포괄한 다수유권자연합 구축

■ 2012년 정권교체의 관건은 지지층 재편성에 기초한 다수유권자연합 구축의 실현 여부

- 현재 민주당은 기존 정당들의 분화에 따른 다당제 구조, 핵심지지계층의 협소화와 부동층의 증가 등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거나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
- 유권자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정치의식 및 태도의 변화에 조응한 지지층 재편성 전략을 통해 다수유권자연합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지층 재편성 전략은 단순한 지지층의 복원전략이 아니라 지지층의 새로운 변화에 맞게 우리의 전략과 정책을 변화시켜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지역적 차원을 넘어 핵심과 외연, 세대와 계층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유권자 지지획득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다수유권자연합 구축전략의 기본 방향
- 지역연합에 기초한 전통적 지지기반 복원전략의 극복
 - 지향하는 가치관 이외에 계층적 특성과 이해관계에 기초한 가치지향성과 정책에 기반 한 다수유권자연합 전략 추구

■ 협소한 지지기반의 한계 극복 위한 잠재적 지지계층의 견인 노력 절실

- 다양한 직능·이익단체와의 유대강화 통해 지지기반 외연확대 노력 필요
- 한나라당에 비해 지지기반이 협소한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연합 구축의 토대 마련 등 잠재적

지지기반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

- 당 실무조직과 연계된 의제·시민포럼 등의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新중산층을 주요 타깃계층으로 선정해 맞춤형 정책 제시 통해 지지 유도
- 특정 정당에 대한 뚜렷한 지지성향이 없는 젊은 유권자로서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하는 新중산층, 특히 서울·수도권 거주 부동층 중 新중산층 집중 공략 통해 지지기반의 외연확대 필요

* 현 부동층의 구조적 특성

- ▶ 현 부동층의 구조적 특징은 경기도·영남·충청·전남지역의 부동층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임. 특히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 영남권과 충청권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지지층의 충성도 약화경향에 따른 전통적 지지기반의 점진적 누수현상으로 판단됨.
- 연령별로 ▲20대와 30대, 권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및 충청·전남지역,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에서 부동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과 대재 고학력 계층 ▲국졸 이하 저학력 계층에서, 직업별로는 ▲학생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자 계층에서 부동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블루칼라 및 자영업자 계층의 부동층 비율 증가는 지속되는 고용 및 생계불안에 대한 강한 불만이 반영돼 있어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누수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판적 지지층인 20-40대 세대연합 구축 -'30대 강화론'

- IMF의 직격탄을 맞았던 30대가 중심이 되어 각 세대를 매개하면서 새로운 진보적 지향성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보수화 경향을 보이는 486세대의 재정지화, 정치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20대를 견인할 수 있는 세대연합전략을 마련 필요

- 지방선거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이 세대들이 연합한 것은 사실이나, 결합의 강도나 지속여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표 7] 각 세대의 분야별 정체성 분류

정체성	정치(민주주의)	경제(부동산)	사회문화(감정구조)
486세대(40대)	진보적	보수적	공동체주의
IMF세대(30대)	진보적	진보적	자유주의
88만원/쫄보세대(20대)	유동적	유동적	정치적 냉소주의

자료출처: 이명원 2010, "세대연합과 감정혁명" 『문화과학』 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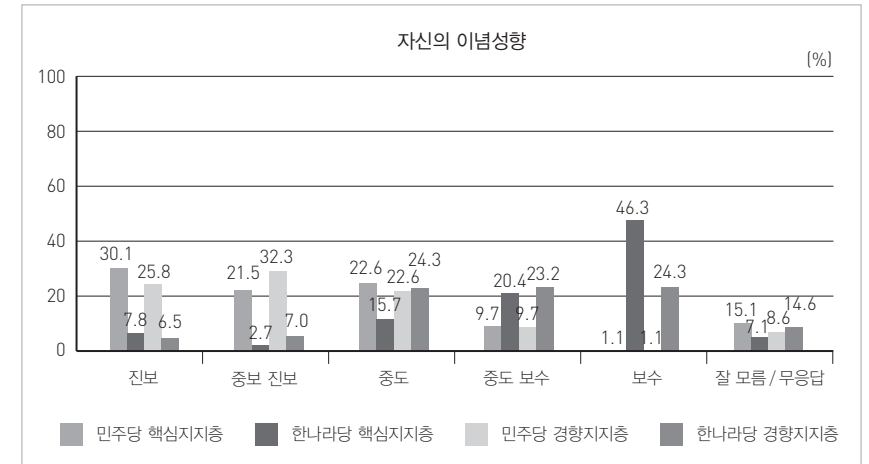
■ 책임성 담보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 또는 통합 가시화

- 2012년 총선과 대선 전 진보·개혁세력의 연대 또는 대통합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감을 반영해 정권교체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
- 진보세력의 비전·개혁적 가치가 반영된 법안의 관철 위해 국회 차원의 원내 정책공조와 공동의제 선정, 공동정부 구성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공동의제실천위원회 등 구속력을 담보한 실무단위를 구성해 지속적 활동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3) 시대정신 재해석 통한 진보적 정체성과 유연한 정책노선 추구

■ 민주당 지지층 및 부동산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그림 9] 민주당 및 한나라당 지지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자료출처: 민주당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부동산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이념성향은 이념적 스펙트럼선상의 진보와 중도에 주로 분포
- 민주당 지지층의 이념적 지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의 핵심지지층과 경향지지층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층의 이념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 민주당 핵심지지층의 이념분포는 △진보 30.1% △중도 진보 21.5% △중도 22.6% △중도보수 9.7% △보수 1.1% △잘 모름 15.1%로 나타남
- 민주당의 경향지지층은 △진보 25.8% △중도 진보 32.3% △중도 22.6% △중도보수 9.7% △보수 1.1% △잘 모름 8.6%로 조사돼 민주당의 지지층의 이념지향은 이념적 스펙트럼 선상에서 주로 진보와 중도 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8] 민주당 지지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자신의 이념성향(유권자 전체 중 %)					전체
		진보	중도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보수	
민주당 유권자 유형	민주당 핵심지지층	2.1	1.5	1.5	0.7	0.1	5.8
	민주당 경향지지층	1.8	2.2	1.5	0.7	0.1	6.3

자료출처: 민주당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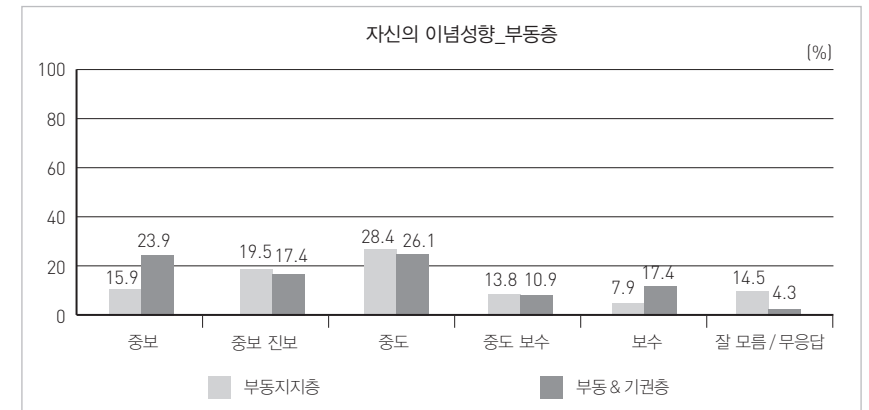
[표 9] 현재 민주당 지지층 중 최근 두 차례의 선거에서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한 계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현재 지지/ 선호정당	지방선거 지지후보	18대 대선 지지후보	자신의 이념성향(%)					전체
			진보	중도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보수	
민주당	민주당 후보	정동영 후보	18.3	15.5	14.7	7.5	1.2	57.1
		이명박 후보	1.2	4.0	3.2	4.0	0.0	12.3

자료출처: 민주당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제17대 대선 지지후보, 2010년 지방선거 지지후보, 현재 지지하는 정당과 자신의 정치적 이념성향을 교차분석 결과, 지난 두 차례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정지지층의 이념성향은 △진보 18.3% △중도 진보 15.5% △중도 14.7% △중도 보수 7.5% △보수 1.2%의 분포를 나타내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10] 부동산층의 주관적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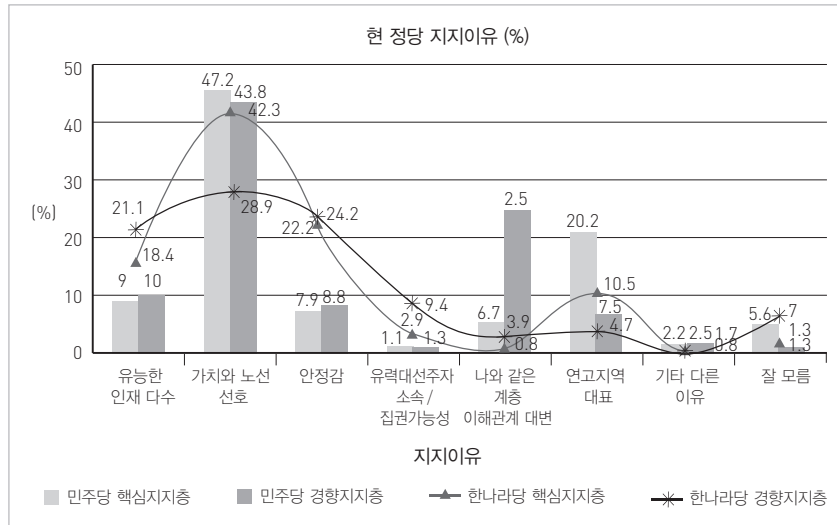
자료출처: 민주당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부동산층 중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있는 부동지지층의 이념성향 분포는 △진보 15.9% △중도 진보 19.5% △중도 28.4%, △중도 보수 13.8% △보수 7.9% △잘 모름 14.5%로 나타남
- 반면에 특정정당에 대한 선호가 없는 순수부동층과 일시적 기권층은 △진보 23.9% △중도 진보 17.4% △중도 26.1%, △중도 보수 10.9% △보수 17.4% △잘 모름 4.3%로 나타나 민주당 지지층의 이념 지향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정당 지지층 및 부동산층의 정당지지/선호이유

-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이 지지정당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
- 부동산층을 포함한 각 정당 지지층 다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주요한 이유로 현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에 대한 선호를 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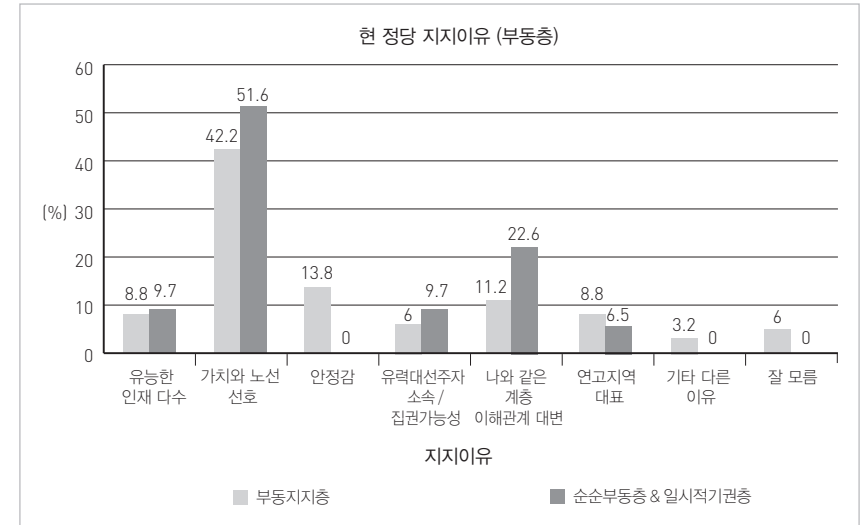
[그림 11] 민주당 및 한나라당 지지층의 현 정당 지지이유



자료출처: 민주당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민주당 지지층은 주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노선 선호 △연고 지역 대표성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해관계나 관심사를 대변하는 계층대표성을, 반면에 한나라당 지지층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노선 선호 △안정감 △유능한 인재 다수 등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특징

[그림 12] 부동층의 현 정당 지지이유



자료출처: 민주당정책연구원, 2011. 4. 전화면접조사

- 향후 민주당의 정체성 및 노선 지향: 서민·중산층 대변 정당으로서 계층 정체성 강화 및 진보적 가치와 노선 지향이 바람직
- 민주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진보적 지향성과 서민·중산층의 계층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노선의 유연성을 통해 중도성향 유권자와 정당일체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보수정당 경향지지층을 전인하는 지지기반 외연확대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도층 전인을 위해 자유, 정의, 평등, 연대, 평화 등의 진보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시대정신에 상응한 핵심 가치의 재해석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문제를 당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 당의 정체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심과 유리된 정책의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이명원. 2010. “세대연합과 감정혁명.” 『문화과학』 63호, 87-106.
- Crewe, Ivor. 1977. “Partisan Dealignment in Britain 1964-1974.”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 129-190.
- Dalton, J. Russell.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46, 264-284.
- Fiorina, Mo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London.

- 2012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

민주당의 당면과제와 전략적 구상

발행일 2011년 6월 20일

발행인 박순성 (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홈페이지 민주당 <http://www.minjoo.kr>
민주정책연구원 <http://www.idp.or.kr>

전화 02-2630-0114

팩스 02-2630-019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디자인 진애드 (02-2264-0608)
